

사무엘상 1:1~11

01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 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02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03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훔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04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05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06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므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07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08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니 하나니 하나니

09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10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1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요약

어렵다는 사람, 교회 불평자들이 너무 많은데 사실일지 모르지만 후대는 어렵게 된다. 미국, 유럽 복음화는 못한다.

▣ 서론_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가? 성경에 기록

1. 성경에 제일 먼저 생긴 사건 - 천사장이 타락하여 흑암, 사탄이 됨
- 1) 창 3장(나), 6장(네페림), 11장(돈, 성공)
 - 2) 행 13, 16, 19장(신전)

- 3) 6가지 병(온갖 질병, 정신병)
2. 흑암, 사단, 멸망에서 구원받으라는 것이 성경
- 1) 이 비밀을 14명 사사를 거처며 놓친 이스라엘
 - 2) 그 결과 블레셋에게 계속 공격
 - 3) 애굽 기적, 홍해, 만나와 메추라기, 이겔 다라고 생각. 사탄에게 진 것
3. 이때 한나가 올바른 기도를 시작
- 1) 한나 한 명의 기도가 시대 움직이는 대제사장 사무엘을 탄생
 - 2) 미스바운동의 주역이 된 사무엘
 - 3) 이스라엘 나라를 살리는 일이 일어났다
- 언약받은 자의 눈물의 기도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기도만 바르게 해도 역사가 시작된다.

▣ 본론_ 나실인 달라는 한나의 기도

1. 육신적 기도 계속한 것을 발견한 한나
- 1) 백성들이 출애굽 기적만 보고 14명의 사사 동안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던 것
 - 2) 상 21:25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 3) 육신적 신앙으로 블레셋 종노릇
2. 영적인 기도를 발견한 한나
- 1) 세 절기와 3초월(보좌, 시공간, 237)의 능력으로 구원, 역사하심 발견
 - 2) 완전 기도하는 영적지도자를 만들겠다는 나실인의 기도 시작
 - 3) 엘리가 술 취한 줄 알고 오해할 정도로 간절한 기도
3. 무응답의 기도를 발견한 한나 - 진짜 신자라면 무응답의 기도가 뭔지 발견해야
- 1) 노예 - 애굽 문화를 정복하는 시간
 - 2) 광야 40년 -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시간
 - 3) 자식이 없는 무응답 - 세계 살릴 지도자를 준비한 시간

▣ 결론_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매일 정시, 무시, 집중기도 해보라. 두 가지 응답이 먼저 올 것이다.

1. 보좌의 축복이 먼저 임한다.
 2.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냈다. 이게 살아나기 시작
- 육신적인 기도 버리고 영적인 기도 시작하면 반드시 왜 응답이 없었는지 보인다. 이때부터 무한한 보좌의 축복과 여러분 영혼 속의 무한한 바탕과 만나게 된다. 이러

면 문제가 와도 응답을 받아버린다.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이 감추어놓은 힘은 보좌와 통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라는 것이다.

녹취

처음에는 미국 유럽에 가니까 어렵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요즘은 언약 잡고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초창기 때는 가보니까 아, 교회에 대한 불평 뭐 이런 거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다 들으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사실인 거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우리 후대들은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복음화 못 합니다. 영국복음화도 못합니다. 유럽복음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답답해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제 사정을 몰라서 그렇다.” 그렇겠지요. 저는 그것보다 더한 사정에 있어 봤고, 있거든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요즘에는 램턴트와 우리 교수님들과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분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옛날하곤 다르다, 할 기도의 제자들이 일어나는 걸 봤습니다. 고통 상관없습니다.

▣ 서론_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가? 성경에 기록

1. 성경에 제일 먼저 생긴 사건
-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가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부끄러운 애긴데 다른 책에는 없습니다. 제가 종교 욕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스님들도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불경에도 있다면 들어야 되겠는데 성경에만 있어요.
- 1) 창세기 3장 - 나
- 성경에 제일 먼저 생긴 사건입니다. 전혀 눈에 보이지 않게 천사장이 타락을 해서요, 눈에 안 보이는 흑암, 사탄이 된 겁니다. 요게 성경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 때 딱 나타났어요. 그 말은 아담 하와 이전에 있었던 말이에요. 딱 나타난 거요. 얼마나 좋은 말로요 하나님 믿지 말라는 겁니다. 이 사탄이 하는 짓이요. 니가 잘 돼야 된다 이거요. 얼마나 좋은 말을 씁니까? 니 자신을 니가 살려야지 왜 하나님을 믿느냐? 선악과 먹어 봐. 하나님처럼 돼. 여러분 이런 유혹 많습니까. 후대들 밖에 나가보세요. 니 인생 니가 살아.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이 사탄이 하는 말은요 굉장하 말이 일리가 있다니까요. 들으면 솔깃해요. 여러분

사기꾼들 보세요. 말을 솔깃하게 잘하잖아요. 또 이상하게 인간들은요 어릴 때 부모님 옳은 말은 잘 안 듣고 나쁜 말만 귀에 잘 집어넣는다니까요. 엄청난 비밀을 벌린 겁니다. 하나님 떠나도록 만든 겁니다. 이게 성경에만 있어요.

2) 창세기 6장 - 네피림

이 사탄은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완전히 네피림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네피림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완전 귀신에 잡히도록 만들었어요. 그 막 다 거짓말 합니다. 점치러 가야 되고 굿해야 되고요. 다 해야 돼요. 그게 다 잡힌거요.

3) 창세기 11장 - 돈, 성공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갖가지 유혹을 하는 겁니다. '이거 하면 돈 벌어! 이거 하면 성공해! 이거 해야 돼!' 전 세계 있는 웹넛트들 그런 소리 듣지 마세요. 기도해서 달란트 발견되기 전에는 움직이지 마세요. 세상 이길 확실한 전문성 생기면 움직이세요. 현상이 똑바로 보이면 사업 벌이세요. 그걸 보고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이라고 합니다.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힘내 가지고 바벨탑 쌓자 이래 나오는지요. 그게 사탄이 하는 짓이요. 참 걱정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속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잘못 가르치는 게 뭔지 압니까? 니가 열심을 품고 최선을 다해봐라. 안되는데 어떻습니까? 아니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됐다가 이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잘못 가르친 거요.

성경에는 그래 돼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발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내 생각할 필요없어 다 버려버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것이 보입니다. 내꺼 놔두고 기도하려고 하니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주옵소서! 그게 된 기도나 싶지만은 사탄은 거기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별별 별 떨면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런 게 무섭지 '나는 죽어도 괜찮아요.' 여기서 사탄이 다 꺾였어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 얘기 하나 밖에 없어요. 흑암, 사탄, 멸망에서 구원! 그 얘기밖에 없어. 다른 얘기는 그거 설명하려고 사건이 있는 거요. 그러면 사이드(side)에 사건 뭐 하나 가지고 길게 설명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어요? 신학자에게 물어보겠어요. 성경 한 절 가지고 책 몇 권 만들어놓는 내용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부모님이 편지 왔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내 아들이!' 썼으면... 그 뒤에 것을 봐야지 '사랑하는 내 아들이!' 그 글자체 가지고 며칠씩 고민할 이유 있어요? 무슨 말을 보냈는가 봐야지..... 성경에는 판 얘기 아닙니다. 저주

에 속지 말고 구원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게 성경입니다. 판 책이 아닙니다. 이래 성공해 저래 성공해 이래 가르칩니다. 성공한 자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열른 보면 맞죠. '열심히 해!' 열심히 해야죠. 게을리하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야죠. 겉모습이 이게 맞아요. 성경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과 세계 복음화가 그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한나가 기도 응답을 오랫동안 못 받고 헛 눈물을 흘리고 있다가 오는 깨달은 거요.

4)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 우상 신전

이 사탄은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서 돈이 났는지 그 가난한 거지 동네도요, 신전을 어마어마하게 지어 놓고 그리로 사람을 끌어들여. 기가 찰 일이에요. 아니, 밥을 못 먹어 가지고 하루에 1달러가 안 되는 걸로 사는 나라 친지요. 거기 가 보면 어디서 가져왔는지 귀신같은 신전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놨어요.

5) 6가지 병 - 온갖 질병, 정신병

더 놀라운 거, 집에 가보면 기절합니다. 왜 귀신 들린 사람들 집을 어지러잖아요. 와! 진짜 나는 눈 사나워요. 오만 병이 다 걸려, 정신병 난리인 거예요.

2. 흑암, 사탄, 멸망에서 구원받으라는 것이 성경

1) 이 비밀을 14명의 사사를 거치면서 놓친 이스라엘 이걸 모르고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14명의 사사를 거쳤습니다.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나는 마음 문이 안 열려서요. 다음에 읽기로 하고 사사기, 룧기 넘어갔어요. 또 놓친 거요.

2) 그 결과 블레셋에게 계속 공격

이래서 이번에는 바벨론에게 계속, 블레셋에게 계속 공격당하는 거요. 지금 이때에 기도한 여자가 한나입니다. 여러분 잘 보고 흐름을 잘 보고 기도하셔야 돼요.

3) 애굽 기적, 홍해, 만나와 메추라기, 이걸 다라고 생각 - 사탄에게 진 것

애굽에서 기적 쳐다보고 그것에 감동 돼가지고 하나님 능력 믿는 거 다 놓쳐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믿음 언약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 앞에 홍해를 갈랐어요. 어떻게 깨달아야 됩니까? 아! 홍해를 갈랐구나! 이렇게 깨달았으면 집니다. 사탄에게 집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이기셔야 돼요. 조그만한 믿음 하나로. 홍해는 안 믿기 때문에 가른 거요. 그렇죠? 그것 가지고 다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돼요. 가는 길에 메추라기 만나 주었습니다. 그거 다가 아닙니다. 그걸 다라고 생각해. 어떻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응답 못받겠죠. 오늘 이거 빨리 캐치(catch)해야 되는 겁니다.

3. 이때 한나가 올바른 기도를 시작

1) 한나 한 명의 기도 - 시대 움직이는 대제사장 사무엘을 탄생

한나가 계속 원망하는 기도하다가 어느 날 올바른 기도를 딱 잡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걸 말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잡으세요.

하도 하도 아들이 타락하니까 동네 사람 욕을 하고요, 심지어는 많은 친척들이 욕을 했다 안니까? 그런데 그 감독이 욕을 안했어요. 다 욕하는데 감독이 한 말이에요. 어머니의 기도의 눈물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암브로시우스라는 감독이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에게 한 얘깁니다. 속으면 안 돼요. 이 모니카가 그 언약 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언약받은 자의 눈물의 기도가 어떻게 없어지겠느냐 말이에요. 도저히 희망 없던 탕자가 돌아왔지 않습니까? 아시죠, 누군지? 나중에 성자까지 가요. 성 어거스틴입니다. 본래 타락자였어요. 그 어머니의 기도로.

저는 늘 부끄러운 게 있어요. 기도 얘기 나오면 나는 우리 어머니! 어휴..... 얼마나 저를 위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뭐 바쁘다는 핑계로 뭐 얘기도 별로 한적 없고 효도도 못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워요. 솔직히 판 거 없습니다. 오직 집, 오직 교회, 오직 일, 기도! 남의 말도 한적 없어. 오직 기도. 내가 슬쩍 물어봤다니까요. "아이구 저분들 와서 교회 얘기 저렇게 많이 하면 뭐, 힘들겠어요?"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너무나 간단하게 쉽게 대답했어요. "저분들은 시간이 많으니까, 나는 바빠서 그런 생각할 시간이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맞잖아요. "나는 너네 키우기 바쁘는데 그럴 시간이 없다."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그 여러분 한 명의 기도가요.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시대 움직이는 대제사장 사무엘을 탄생시킨 거요. 나실인! 오늘부터 기도하시는데 속지 말고 기도하셔야 된다니깐요.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언약 잡고 있는 오직 그리스도 그 능력만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 언약 속에만 딱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속아요.

2)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 된 사무엘

이 어머니의 기도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니 상상초월이러니깐요?

저는 그 이해 돼요.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 됐어요. 사무엘이.

3) 이스라엘 나라를 살리는 일이 일어났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아들, 그렇게 희망 없던 아들. 정말 저거는 아니라는 자식이 나라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었던 말이에요.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 우리는 안 믿는 거죠. 한나 사실은 안

믿은거죠. 내게 자식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됩니다. 안 믿은 거요.

어느 날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기도만 바로 해도 역사 시작됩니다. 아니 문제 일어났는데 큰일났네!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십시오. 하나님은 악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아요. 선한 계획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게 벌써 이기기 시작한 겁니다. 막 벌벌 내가 떨고……. 머리 속에는 오만 것 다 떠오르지. 이거 떠오르고 저거 떠오르고 이게 어떻게 됩니까? 마귀 들린 게 따로 없어요. 이것저것 막 들어오죠. 이 어머니의 기도가 다윗을 만들 어내는 지도자로 아들로 썼어요. 전에는요 기도 수준도 낮았습니다. 막 화내면서 '왜 브닌나는 애가 있는데 나는 왜 없냐?' 이런 식으로. 그런 기도죠? '다른 사람 다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냐? 왜 저 사람 나에게 섭섭하게 하느냐?' 실컷 잘하는 남편보고 '왜 나에게 섭섭하게 하느냐?' 뭐 '우리 남편 저거는 있으나 마나야.' 전부 그런 기도입니다. 한나 맨날 그 기도한 거요. '목사님 목사님은 몰라서 그렇지…….' 그런 생각 들 겁니다. 나는 두번요 똑똑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알아 들으면 응답받아 두 번 그런 일 있었어요. 남편이 공무원인데, 전에 얘기했잖아요. 너무 이 남자는 이상한 남자야. 아니 술을 먹으면 어찌다 한 번씩 먹어야지 매일 같이 먹는데. 좀 심하지요? 매일 같이. 매일 먹는 건 좋아. 적당히 먹고 와야 될 꺼 아니요. 새벽 2~3시까지 먹는데. 새벽 2~3시까지 먹고 안 오면 되는데 그때 집에 온대. 고3 아이가 있는데 이게 진짜 어찌면 좋겠냐고. 꼴도 보기 싫다는 거요. 이해됩니다. 아주 똑똑한 부인인데, 내가 그래서 그때 전도사 때 '집사님!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은 술 먹는 게 아닙니다.' 아니 매일 쳐먹는다는 거요. "예, 알겠습니다." "나는 그분 봤는데 괜찮은 사람이던데요." "남한테는 잘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람도 잘생겼어요. "사람도 참 멋지던데요." 이러니까 결국 그렇데요. 이러면요, 그 여 집사 기도 끝났습니다. 할 것도 없습니다. 맨날 이런 기도지.

우리요, 기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요. '집사님 나는 집사님 남편이 불쌍합니다.' 이랬어요. "뭔가를 찾아 해매는 겁니다. 일단 쉽게 갈 수 있는 데가 술집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술집에 가면 술집 여자는 집사님 보다 훨씬 잘해줍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제 됩니까? 나는 집사님 남편이 불쌍해요. 술먹는 게 아닙니다. 해매고 다닙니다. 근데요, 기도해 줄 사람 집사님 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끝났어. 이분 말을 알아 들었어요.

여러분, 기도가 뭐냐? 기도 어떻게 생각합니다. 뭘를 금식하고……. 뭘를 금식합니까? 금식 아무

때나 하지 마세요. 밥을 먹을 상황이 못할 때 하는 거지. 심심하며 배를 굶고,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그게. 뭐 심심하면 보파리 싸서 산에 기도한다, 뭐 나쁠 건 없습니다. 그겁니까? 이 집사님이 새벽기도 시작한 거요. 생전에 기도 안 하던 사람이요. 작정기도 시작한 거요. 지금 시간 없어요. 얘기할 수 없어요. 이 남편 완전히 돌아왔어요.

지금 제 설교 듣고 계실 겁니다. 미안합니다. 그저, 좋은 일이라. 그 뒤에 또 어떤 분이 제게 편지 했어요. 너무 이런 남편하고 못 살겠다고. 이런 분들 참 관찮은 분들이요. 한마디만 했어요. 집사님, 그 남편을 위해 기도할 사람은 저가 아닙니다. 집사님이십니다. 알아들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알아들었어요. 회복됐다고, 감사하다고 편지 왔어요. 말을 줄이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무슨 기도를 했단 말이나?

■ 본론_ 나실인 달라는 한나의 기도

1. 육신적 기도 계속한 것을 발견한 한나

1) 백성들이 출애굽 기적만 보고 14명의 사사 동안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던 것

나실인을 달라고 잡자기 기도 시작한 거요. 첫째입니다. 육신적인 기도를 계속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우리 해봤자 육신적인 얘기 아닙니까? 육신적인 기도만 계속한 거요. 그걸 발견한 겁니다. '출애굽 해서 좋다.' 그걸로 감사. 그 뒤에 것은 몰라요. 아니 '빵 먹으니까 좋아. 돈 생기니까 좋아. 뭐 기적을 보니까 좋아.' 뭐 어쩔만 말입니까? 그걸로 끝난 거요. 이래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14명의 사사가 지나갈 때까지 백성은 하나도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거요. 안타깝지요.

2) 샛 21:25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가 끝장 끝절에 '사람들 다 자기소견대로 행했다.' 그래서 설교자의 자유는 그거 아닙니까? 그거 빼고 사무엘상 읽기로 했어요. 읽을 가치 없어요!

3) 육신적 신앙으로 블레셋 종노릇

똑같은 육신적인 신앙으로, 그 기도로, 블레셋 종노릇하는 거요. 또 나왔는데 이 기도를 한나는 시작한 겁니다.

2. 영적인 기도를 발견한 한나

1) 세 절기와 3초월(보좌, 시·공간, 237)의 능력으로 구원, 역사하심 발견

두 번째입니다. 드디어 영적인 기도를 발견한 겁니다. 영적 기도는 뭐니까? '옛날에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세 절기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다.' 이거예요. 그것도 3초월 하면서. 그렇죠? '보좌와 시·공간과 237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역사하지 아니했나!' 2) 완전 기도하는 영적지도자를 만들겠다는 나실인의 기도 시작

완전 기도 바뀌었어요. '하나님! 이제 나를 나실인을 나에게 주옵소서.' 머리도 꺾지 않고 나실인 있어요. '완전히 기도하는 영적 지도자를 만들겠습니다.' 그 기도입니다. 판 거 없습니다.

저는 이상하게도 모교회와 부목사 마지막 교회들이요 좀 싸우는 교회였어요. 교회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복음 없는 사람들, 복음 없어요! 복음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복음 없으니까, 자리! 뭐 누가 남고……. 거기에만 관심 있어. 그렇죠? 우리의 나이 드신 어르신들 보세요. 뭐 이분들이 자리 때문에 앉아계십니까? 오직 기도하겠다는 분들이요. 그렇잖아요. 저 부산에 숨어서 기도하는 할머니들이 자리 싸움합니까? 그냥 기도한 거예요. 맨날 이런 짓 하는데 얼마나 사탄이 역사한다는 걸 몰라. 나중에 싸워요. 감정 대립돼 가지고 말도 안 통해요. 히야, 심각하드만. 그때는 저는 방법 없습니다. 무조건 말없이 기도합니다. 진짜 우습더라고요.

3) 엘리가 술 취한 줄 알고 오해할 정도로 간절한 기도.

오늘 여러분 영적 기도를 발견하세요. 어느 정도 영적 기도 했나? 얼마나 간절했는지 '술 좀 깨서 술 먹지마!' 술 취한 줄 알고. 그때에 아무리 못난 주의 종이지만 엘리가 축복하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실 것이다." 여러분 교회 힘들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그 무능한 엘리 통해서도 하나님은 사무엘을 축복해서 이 한나를 축복하셨어요. 세 가지 발견입니다. '아! 육신적인 기도했구나!'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나오죠. 뭐죠? 영적 기도를 발견한 겁니다. '나실인을 주옵소서' 이게 보통 발견이 아닙니다. 마지막 뭐니까?

3. 무응답의 기도를 발견한 한나 - 진짜 신자라면 무응답의 기도가 원지 발견해야.

여러분이 무응답의 기도를 발견해야 돼요. 오늘!

1) 노예 - 애굽 문화를 정복하는 시간

노예로 있는 동안에는 노예가 아니라 애굽 문화를 정복하는 준비 시간이라. 무응답 아니예요. 진짜 신자라면 무응답의 기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무응답의 기도가 뭔지 그걸 발견해야 돼요. 나는 기도했는데 응답도 안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거기에 굉장한 거 있어요.

2) 광야 40년 -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광야에 가둬 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꾼 거요.

3) 자식이 없는 무응답 - 세계 살릴 지도자를 준비한 시간

한나에게 자식 안 준 것처럼 보였잖아요. 한나가 막 울었더니 줘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지도자를 준비해 놓은 거요. 그걸 한나에게 줄려고 하는데, 한나가 맨날 육신기도만 하는 거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를 세계 살릴 일꾼으로 준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맨날 빵 얘기하고 사람 얘기하고 시간 다 보내는 거요. 단 한 번에 끝난 겁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 안 왔는데 나실인이라는 언약 딱 잡았어요. 여러분 흐름을 잘 잡으세요. 오늘 나실인이라는 단어를 또 잘못 잡으면 안 돼요. 옛날 직분인데 말이요. 그렇죠?

▣ 결론_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매일 정시, 무시, 집중기도 해보라. 두 가지 응답이 먼저 올 것이다.

여기서 어떤 흐름을 잡아야 되겠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 뭘까요? 시간 많습시다. 기도해 보세요. 매일 기도해 보세요. 놀라운 일 일어납니다. 매일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정시, 무시, 집중 매일 해보세요. 할 때 자꾸만 딴 생각하는데 딴 생각 그거는 기도 아닙니다. 생각이지.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이러면 가장 먼저 두 가지 응답이 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1. 보좌의 축복이 먼저 임한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요, 두 가지 응답이 먼저 와요. 그게 뭔가 하니까 내가 바라고 있던 거 먼저 오는 게 아니고 보좌의 축복이 먼저 임해요. 이전 이제 머리 나쁜 사람은 모르는 거요. '보좌의 축복 임한다.' 하니까 머리 나쁜 사람들 몰라. 그러니까 무당이 세상 사로잡고 있다는 말도 못 알아듣는 거랑 똑같애. 보좌의 축복이 임한다는데, 어디 보좌 축복이 임하나? 이렇게 생각해요.

2.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놨다. 이게 살아나기 시작

오늘 렘넌트에게 얘기할 건데 더 중요한 게 두 번째 꺼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 놓은 거요. 그렇죠? 그게 살아나기 시작해. 이때부터 받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진짜 응답이 뒤에 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혼을 심어놨기 때문에 이 영혼이 소성하는 힘을 얻어 버리는 겁니다. 이게 보좌의 축복과 하나가 딱 되는 거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눈이 달라집니다. 문제와도 괜찮습니다. 왜냐? 문

제와도 하나님의 나라 보여요. 문제가 아니잖아요. 노예로 갈 때 응답 받아 버려요. 노예로 가서 말이죠, "야!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난 노예 아니야!" 하면 돌아야 왔다고 할 겁니다. 노예로 갈 때 최고 청소부로 계획 잡은 거요. 그렇죠? 그래서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어려운 것이 왔다? '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캐치(catch)하면 제일 빨라. 누가 나보고 이상한 잡 소리한단 말이요. '야!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실 일이 있구나!' 빨리빨리 캐치(catch)하세요. '하나님! 우리집에는요, 평생 동안 내가 고생해야 되는 장애인이 있는데 어떡합니까?' 앤 설리번과 헬렌켈러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잘 찾아 보세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아이가 정신이 이상한데 안 고칠 거 같다." 간단합니다. 저 아이도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평생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그래서 다른 사람 불러 같이 살도록 만들어라. 앞으로요 교회는 그런 시대로 가야 됩니다. 우린 뭐 자꾸 이 큰 응답이 뭇가를 놓치고 있는거요. 말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육신적인 기도가 뭇가를 버리고 영적인 기도를 시작하면, 반드시 왜 응답이 안오냐? 그것부터 보입니다. 무응답부터 보입니다. '야! 그랬구나!' 그러면요 조금 부끄러워진단나깐요. 이때부터 진짜 기도 나와. 좀 부끄러워져야 돼요. '야, 내가 잘났구나!'가 아니고 '하 참,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좀 부끄러워져야 돼요.

그때부터 무한한 보좌의 축복과 여러분 영혼 속에 있는 무한한 바탕하고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뒤부터 하나님의 나라 임합니다. 제가 오늘 길게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잠시 요약이 안 될수가 있다가 이 말이죠. 그죠?

여러분 바로 기도하도록 딱 요약을 해 볼게요. 여러분 속에 있는 영적인 하나님이 감추어준 힘은 보좌와 통하기 때문에 그거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거는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올바른 기도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속지 않는 영안을 뜨게 해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속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끝)